

한국전쟁과 아동문학 · 3*

- 이원수와 강소천의 소년소설 비교 연구 -

원종찬**

〈차 례〉

1. 서론
2. 이원수의 대표 장편
3. 강소천의 대표 장편
4. 결론

[국문초록]

이원수와 강소천은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피해 당사자로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품을 누구보다도 많이 썼다. 한국전쟁 직후에 나온 이원수의 「꼬마 옥이」 연작, 강소천의 「꽃신」, 「꿈을 짚는 사진관」 등은 국민적 트라우마를 위무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고발한 1950년대 아동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특징짓는 동화적 상상력은 '상처받은 어른'의 판타지에 해당하기에 내포독자 연령이 사뭇 높은 편이다. 두 작가 공히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일종의 '소원 성취 판타지'를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작가는 일련의 동화 창작으로 가족 상실에 대한 속죄와 애도를 마친 뒤 현실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장편(주로 소년소설) 창작에 더욱 힘을 쏟는다. 이원수의 『민들레의 노래』, 『메아리 소년』, 강소천의 『해바라기 피는 마을』, 『그리운 메아리』 등이 그런 장편들이다. 두 작가의 장편은 한국전쟁에 대한 상이한 기억과 시각으로 말미암아 상반된 효과를 발휘했다. 이원수의 장편은 국가폭력을 비판하면서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성격인데 반해, 강소천의 장편은 '빨갱이'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성격이었다. 두 작가의 행보는 갈수록 엇갈렸다. 이렇게 해서 이원수와 강소천은 분단시대의 아동문학을 진보와 보수 두 흐름으로 양분한 결정적인 작가가 되었다. 아동문학에 끼친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전쟁의 영향은 분단시대 내내 지속되었고, 아동문단의 대립도 부침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제어] 아동문학, 이원수, 강소천, 한국전쟁, 전쟁 트라우마, 반공주의

1. 서론

본고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원수와 강소천의 아동문학을 비교 연구하는 3회에 걸친 논문의 최종회분이다. 1~2회분에서 밝혔듯이¹⁾ 이원수와 강소천은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피해 당사자로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작품을 누구보다도 많이 썼다. 그 중 이원수의 「꼬마 옥이」 연작, 강소천의 「꽃신」, 「꿈을 짚는 사진관」 등은 국민적 트라우마를 위무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고발한 반전평화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특징짓는 동화적 상상력은 ‘상처받은 어른’의 판타지에 해당하기에 내포독자 연령이 사뭇 높은 편이다. 두 작가 공히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일종의 ‘소원 성취 판타지’를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작가는 일련의 단편 동화 창작으로 가족 상실에 대한 속죄와 애도를 마친 뒤 현실 대응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장편(주로 소년소설) 창작에 더욱 힘을 쏟는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이원수의 「아이들의 호수」, 『민들레의 노래』, 『메아리 소년』, 강소천의 『해바라기 피는 마을』, 『그리운 메아리』 등이다.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려진 것들인데, 이원수의 「아이들의 호수」와 강소천의 『그리운 메아리』는 판타지로서 장편동화로 봐도 무방하다.²⁾

1) 참고, 「한국전쟁과 아동문학 · 1: 이원수의 전쟁 트라우마와 「꼬마 옥이」」, 『한국학연구』 6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참고, 「한국전쟁과 아동문학 · 2: 강소천의 「꽃신」과 「꿈을 짚는 사진관」」, 『한국학연구』 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2) 아동문학의 서사 갈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기에 하나의 작품에 대한 장르 명칭이 여러 개로 겹칠 수 있다. 「아이들의 호수」는 장편동화 · 소년소설 · 판타지, 「그리운 메아리」는 장편동화 · 소년소설 · SF · 판타지 등의 장르 명칭이 모두 가능하다. 이 문제는 본고의 주요 관심사가

본고는 판타지 「아이들의 호수」(『새벗』, 1959.7~1960.11)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소략하게 짚은 뒤 넘어가고 『그리운 메아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상세하게 살피는 방식을 택했다. 두 작가의 행보로 보건대, 이원수의 「아이들의 호수」는 한층 강렬해진 현실의식에도 불구하고 절충적인 면이 다분해서 채 정비되지 않은 1950년대 전후문학의 성격이 짙다. 그에 비한다면 『민들레의 노래』, 『메아리 소년』은 4·19 혁명 정신에 호응하는 혁신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전후문학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문학사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소천의 판타지 『그리운 메아리』는 생애 마지막 장편임에도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이 없다. 이는 강소천의 행보가 월남 후 남한에 정착하고부터 사망하기까지 이렇다 할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전후문학’에 고착된 상태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계된다. 『그리운 메아리』는 작품의 성과와 관계없이 ‘강소천 경향’을 살피는 데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

필자는 이원수의 「꼬마 옥이」 연작을 살핀 앞선 연구에서 ‘작가의 불행한 가족사’를 공분모로 하는 작품이 1950년대에만 10편 내외에 달한다는 점을 밝히고, 특히 「꼬마 옥이」 연작을 통해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속죄와 애도를 매듭짓는 통과의례를 수행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꼬마 옥이」 연작까지는 작가의 트라우마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로는 적극적인 현실 대응의 창작실천으로 나아갈 것임을 연작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다짐 하듯이 드러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꼬마 옥이」와 상호텍스트성을 지니는 10편 내외의 작품을 정리한 도표의 맨 끝자리를 장편 「아이들의 호수」가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호수」는 『꼬마 옥이』 연작 이후의 산물이기에 한층 날카롭게 현실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가족사 문제와 직결된 속죄와 참회 형식의 ‘자기연민’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들의 호수」에 관한 그간의 평가를 보면, “주인공들이 카오스 인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수동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³⁾거나 “강박적일 정도로 순진

아니기에 자세한 고찰을 생략한다.

3) 이충일, 「1950년대 이원수의 동화·아동소설 연구」, 『한국문화기술』 5,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8, 215쪽.

한 윤리의식을 표출⁴⁾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가 ‘호수’라는 판타지 공간을 통해 “낭만적으로 해결”⁵⁾되는 한계를 지적한 연구도 있다.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낳은 주된 요인은 이념적 금기와 작가의식 및 작품형식의 상호 충돌이 아닐까 한다. 필자가 보기에 「아이들의 호수」는 ‘동화적 상상력’과 ‘소설적 리얼리티’가 불협화음을 이룬다. 동화적 상상력은 이념적 금기와 관련되고 소설적 리얼리티는 작가의 현실의식과 관련된다고 볼 때, 두 요소의 접합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다. 주인공 용이가 집, 학교, 사회에서 받는 학대와 폭력은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라서 사실적으로 그려내려는 의도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현실 반대편에 자리한 호수에서 경험하는 정의의 실현과 위안은 주관적 환상에 속하는 ‘소원성취 판타지’에서 크게 벗어난 모습이 아니다. 일종의 과도기적 특징으로서 이런 불협화음과 절충성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원수의 창작실천은 4·19 혁명을 계기로 비약적인 전환을 이룬다.⁶⁾ 곧이어 살펴볼 장편 『민들레의 노래』와 『메아리 소년』은 바로 4·19 혁명과 더불어 이룩한 비약적인 성취에 해당한다. 이후로도 이원수는 「불새의 춤」(『주간 기독교』, 1970.12), 『잔디숲 속의 이쁜이』(『가톨릭소년』, 1971.9~1973.12)와 같은 시대적 명편을 이어나갔다. 반면에 전후 아동문단의 실세로 떠오른 강소천의 경우는 「나는 겁쟁이다」(『새벗』, 1961.12), 「쌍구라는 아이」(발표지 미상; 동화집 『어머니의 초상화』, 배영사, 1963)와 같은 몇몇 단편들에서 어느 정도 4·19 혁명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긴 해도, 끝내 반공주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수호자로서 작가적 생애를 마쳤다. 5·16 군사정변 이후 ‘강소천 경향’은 여전히 주류에 해당했다.

4) 박성애, 「1950년대 아동산문문학에 드러나는 이념과 윤리의식: 이원수의 「아이들의 호수」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140쪽.

5) 장수경, 「이원수 소년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서사적 지향: 「아이들의 호수」, 『민들레의 노래』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320쪽.

6)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박종순, 「이원수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이균상, 「이원수 소년소설의 현실 수용양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18-1, 청람어문학회, 1997; 장영미,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와 위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분단시대 이원수와 강소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 작가 연구든 작품의 비교 연구든 작가·작품론으로 분류되는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제각각 의미를 지니는 소중한 성과들이겠지만, 동시대 최대의 활약을 보인 두 작가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두 작가의 창작경향을 문학사적 시각으로 비교 검토하면서 분단시대 아동문학사의 계보를 살피려는 데 최종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주목한 이원수와 강소천의 대표 장편들은 모두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관계된 것들이다. ‘이원수 경향’과 ‘강소천 경향’의 분화에서 한국전쟁은 막강한 영향을 끼쳤거니와 분단시대 아동문학사의 주요 계보는 ‘기억 투쟁’과 연계된 역사의식의 문제와 더불어 분화했다는 가설을 세워봄직하다.

2. 이원수의 대표 장편

해방 전에 동요 시인으로 활동했던 이원수는 해방 후의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응하고자 산문 영역으로 활동을 확대했다.⁷⁾ 새나라 건설이라는 시대 과제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장편 『숲속 나라』(『어린이나라』, 1949.2~12)는 그런 산문적 대응의 결과였다. 그런데 6·25 전쟁의 상처를 안고 동화를 창작하다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는다. 전쟁으로 중단된 연작 「구름과 소녀」의 속편을 구상하던 중 눈앞의 시대 상황이 마음을 짓누르는 통에 모종의 회의감에 휩싸였던 것이다.⁸⁾ 이를 계기로 현실 대응과 관련한 창작방법의 모색이 본격화된 듯하다. 동화 작가라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형상화 방법을 두고 동화와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현실에

7) 이원수, 「나의 문학 나의 청춘」, 『이원수아동문학전집·30』, 웅진출판사, 초판 1984, 16판 1쇄, 1992, 참조.

8) “내 방 이불 속에 들어와 있드려서 다시 붓을 들었다. 그러나 동화 「구름과 소녀」의 속편을 쓰려는 내 머리맡에는 꿈 같은 향수와 어린 소녀에 대한 그리움의 이야기인 그 동화 대신 내 주위에 벌어져 있는 어른들의 흐느낌과 신음만이 호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그만 붓을 던지고 번듯이 드러눕고 말았다.”(이원수, 「불운 속에서」, 『문학예술』, 1956.3; 『이원수아동문학전집·26』, 139쪽)

서 비롯된 고통이 한층 명명백백하고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수록 동화의 방식에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작가적 고민은 이원수의 창작경향을 계승한 권정생에게도 똑같이 심각하게 나타난 바 있다.⁹⁾ 권정생의 『몽실 언니』(1984), 『초가집이 있던 마을』(1985), 『점두이네』(1990) 등 ‘한국전쟁 소년소설 3부작’은 그런 고민의 결과였다.¹⁰⁾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원수는 「아이들의 호수」로 더욱 적극적인 현실 대응을 보여주었으나 충분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때마침 4·19 혁명이 터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졌다. 시대 상황과의 대결을 고민해온 이원수에게 4월 혁명은 새로운 창작의 물꼬로 작용했다. 그 결과가 현실을 우회하는 동화 양식이 아니라 현실에 직립해 들어가는 소설 양식의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원수는 아동문학의 서사 갈래에서 동화와 소년소설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한 작가였다. 그에 따르면 소년소설은 ‘소년소녀들에게 읽히는 소설’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서 “동화가 공상적·추상적인 문학 형식인 데 대하여 소설은 현실적·구상적인 문학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즉 동화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다룰 수 있으나, 소설은 현실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¹¹⁾ 동화도 당연히 현실을 반영하지만 은유와 상징 또는 알레고리 형식으로 표현되는 데 비해, 소년소설은 사실성을 중시하는 양식이다. 4월 혁명 직후의 첨예한 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동화보다 소설 양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바로 『민들레의 노래』와 『메아리 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9) “서울 다녀와서 나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 이상 동화를 붙잡고 있다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어. 당분간 소설을 쓰기로 맘먹었다. 언젠가 다시 동화 쓸 수 있는 시절이 또 올거야. 그걸 기다리기로 했다.”(이현주 목사에게 보낸 1975년 3월 5일자 편지, 이철지 편, 『오몰덩이처럼 뒹굴면서—권정생의 글모음』, 종로서적, 1986, 232쪽)

10) 출고, 「속죄양 권정생」,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참조.

11)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이원수아동문학전집·28』, 33쪽.

1) 『민들레의 노래』—4·19 혁명 정신으로 소환한 6·25 양민학살 사건

『민들레의 노래』(1960~1961)는 『새나라 신문』과 『학원』에서 연재되다가 1961년 12월 학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¹²⁾ 이후 중앙서적(1968), 대광출판사(1971), 사계절출판사(2001) 등에서 거듭 단행본으로 재출간되었고, 1984년 웅진출판사에서 발행된 작가 전집에도 포함되었다. 이 장편은 4·19 혁명 직후의 사회적 현실을 동시간대에 작품화해서 신문·잡지에 연재한 것으로,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은 흔치 않은 사례다. 4월 혁명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의 교차와 갈등 양상을 생생하게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의 ‘양민학살사건’¹³⁾을 널리 환기시키고자 그 희생자 가족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4월 혁명 정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6·25 양민학살사건을 이만큼 비중 있게 작품화한 경우는 한국문학을 통틀어 거의 처음일 듯하다.

작품의 무대는 4월 혁명 직후의 서울이고, 부잣집 정미네 집에 얹혀 사는 고아소년 현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현우와 정미는 사이 좋게 지내왔지만, 정미가 현우의 동시 ‘민들레의 노래’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데다 아버지의 주선으로 곡이 만들어지고 거실에서 노래발표회를 갖기로 하자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발생한다. 정미는 노래발표회 때 현우가 집에 없기를 바라고 자꾸 심부름을 시킨다. 현우는 심부름으로 중창단 소녀들을

12) 이원수 전집에는 “『새나라 신문』(1960~1961)”이라고 서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장수경에 따르면 『새나라 신문』은 1960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발행되었다. 이 작품은 1961년 3월부터 8월까지 『학원』에도 연재되었고, 그 뒤 학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장수경, 앞의 논문, 321쪽) 전집에서 이 작품의 해설을 쓴 김종철은 “1961년 12월에 단행본으로 나온 『민들레의 노래』는 ‘순정 소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고 한다. (김종철, 「어른도 감동시키는 소년 소설, 『민들레의 노래』, 이원수아동문학전집·13, 390쪽) 본고는 웅진출판사의 전집에 수록된 것을 텍스트로 삼았다.

13) 작품에는 “경상X도 에이치읍에서 가까운 산골”(157쪽)로 나오는데, ‘에이치읍’은 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19 직후의 국회 진상조사에서 경남 지역은 거창, 함양, 산청, 마산 등의 희생자 수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강수, 「1960년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조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6쪽, 참조.

미중 나간 자리에서 현우가 죽은 자기 오빠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경희와 인연이 생긴다. 정미는 현우에게 엉터리 주소를 적어주면서 또 심부름을 시킨다. 현우는 길을 헤매다가 만난 동네 형 호야의 꾀에 빠져 심부름 돈을 쓰게 된다. 모험심이 강하고 돈벌이에도 관심이 많은 호야는 사례금이 있는 실종 이동을 찾는 일로 돈 문제를 해결하자고 부추겨서 둘이 함께 움직이는데, 오히려 유괴범들에게 붙들려 봉변을 당하고 현우는 병원에 입원한다.

이렇게 고아소년 현우를 둘러싼 일들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현우, 정미, 경희, 호야 등의 서로 다른 처지와 성격을 매개로 당대의 사건인 4·19 혁명이 본격적으로 소환된다. 장면마다 주요 인물을 초점화한 서술 덕분에, 4월 혁명에 대한 다성적인 목소리로 현실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구조이다. 당대 사회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도 함께 드러난다. 경희네는 어머니가 인형 작품을 만들어 생계를 잇는 처지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로 경희는 오빠를 잃었다. 현우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경희네와 동병상련의 정을 나눈다. 현우의 아버지는 6·25 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어머니와 자신도 함께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아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정미네는 아버지가 부정축재자로서 4월 혁명의 부패 청산 목소리에 위기를 느끼고 현우가 입원했을 때 몰래 이사를 한다. 현우를 고발자로 의심한 것인데 진실은 정반대였다. 정미 아버지는 현우 아버지를 빨갱이로 몰아서 죽게 만든 양민학살사건의 가해자였고, 이를 숨기고자 이름까지 바꾸고 고아가 된 현우를 데려다 키운 위선자였다. 정미네 식구가 현우를 돌본 것도 부패한 부유층의 허위의식일 뿐이다. 정미네 식구는 4·19 혁명으로 위협을 느끼자 반혁명 기득권세력으로 돌변한다.

현우가 정미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은 6·25 양민학살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나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4월 혁명 직후 학살의 주범을 찾아내려고 돌아온 외삼촌을 만난 것에서 말미암는다. 외삼촌은 현우를 찾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는데, 사례금을 받으려고 개나 사람 찾는 일에 열중인 호야가 이 광고를 보게 되어 둘이 조우하게 된 것이다. 현우는 자신을 돌봐준 정미 아

버지를 보려는 외삼촌을 데리고 정미네로 찾아가고, 외삼촌은 정미 아버지를 보자마자 단박에 정체를 알아본다. 그런데 정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현우의 외삼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정미 아버지가 6·25 때의 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현우 외삼촌을 간첩, 부역자,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나중에 정미 아버지가 부정축재 관련으로 붙들려간 뒤에는 정미 큰오빠가 보낸 청년들에게 현우와 호야도 봉변을 당한다. 정미는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몹시 흔들린다. 자기 집안을 위협하는 시대 상황과 아버지의 행동이 모두 원망스럽지만 현우에 대한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편, 경희의 어머니가 만든 인형 작품을 사겠다는 어느 무역회사의 사장은, 정미 아버지와도 친한 사이인데, 자유중국 정부 고관에게 선물하기 위함이라면서 '4월 혁명의 용사를 위하여'라는 작품 제목을 '6·25 방공의 용사'로 바꾸어 새겨달라고 요구한다. 경희 어머니는 4월 혁명에 희생된 아들을 생각하며 지은 작품 제목을 '6·25 방공의 용사'로 바꾸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경희 어머니가 거절하자 사장은 제목 없이 작가 이름만 넣어달라고 부탁한 뒤 돌아간다. 경희는 큰돈을 준다는 인형 작품을 팔아 빚을 갚고 생계를 도모하되 새로운 인형 작품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마침내 경희 어머니는 아들을 닮은 현우와 경희를 모델로 새 인형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에 출품한다. 4·19 혁명의 피해자인 경희 남매와 6·25 전쟁의 피해자인 현우의 모습을 한데 담은 새 인형작품은 '4·19의 남매'라는 제목을 달고 전시된다. 모처럼 현우, 정미, 경희, 호야가 한자리에 모인 날, 동요 '민들레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이 자리에서 정미는 동요의 원작자가 현우임을 고백하고, 아이들은 이 노랫말이 겨울을 건디는 끈기와 봄의 희망을 상징한다는 말을 나눈다.

이 작품은 얼마간 서사적 우연성이 개입돼 있긴 해도 4·19 혁명 직후의 상황과 여러 등장인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사건들이 동시대적 현실성에 기반하고 있다. 작가는 처지가 다른 여러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또 '깊이 있게' 그려내려고 했다. 4월 혁명을 무력화하려는 역사적

반동과 맞서는 데에는 낭만적으로 혁명을 예찬하기보다는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현실의 갈피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작가의 시각은 현실 변혁에 방점을 둔 역사적 진보성이 뚜렷하다. 하지만 각각의 욕망으로 뒤엉킨 삶의 문제를 교육적 메시지로 단순화한 계몽성에 치우치지는 않았다. 동화로는 다루기 힘든 4·19 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실감나게 그려낸 장면들이 적지 않다. 서사의 흐름에 따라 몇 군데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가 이 꼴이 되셨는지는 정미에게도 짐작이 갔다. 모두 4·19 때문이다. 정미는 마음 속으로 4·19가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정미야, 술병 냐다. 가지고 내려가거라.”

아버지가 빈 병을 내주시며 말씀하셨다. 정미는 술병과 휴지들을 모아 들고 오솔길로 내려섰다.

“한 형! 걱정 말라구! 난 희망을 가지고 있네. 어렵겠지! 반공 사상만 똑똑히 가지고 있으면 말야, 다 머리 숙이고 오게 돼. 하하하하.”

친구 어른의 술 기운에 뜬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 왔다.¹⁴⁾

②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말야. 내가 거지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하나? 왜? 왜? 왜? 대답을 하란 말야!”

“가만히 드러눕요. 남들 듣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래는 듯이 말하신다.

“얼마나 나라를 잘 만드나 볼 테대! 4·19 덕택에 모두 편히 잘 사나 볼 테대!”¹⁵⁾

③ “아버지는 6·25 때 공산군에게 협력을 했대요. 그래서 총살당했다는데요.”
현우의 말에 외삼촌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현우를 똑바로 들여다보더니,

14) 이원수, 『민들레의 노래』(이원수아동문학전집·13), 170쪽.

15) 이원수, 위의 책, 176쪽.

“그게 누가 한 소리냐? 네 어미가 그러더냐?”

하고 캐어 물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흥! 제가 직접 당해 보고서도 그렇게밖에 말 못 하는 자유 없는 백성! —애, 내 얘기를 들어 봐. 네 외삼촌도 네 아버지와 같이 총살당하러 갔었어. 산골짜기로 밧줄에 묶이고 갔어. 썩어빠진 놈들이 싱싱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저희 잘난 체를 하려고……, 그게 애국이라고 소리쳤어. 난 콩볶듯 하던 총 소리 속에 쓰러져서 꿈 속에서 듣듯이 내 귀로 확실히 들었던 말야. 아무 죄 없는 어진 백성들을 죽여 놓고 총 쏜 놈들이 부르는 만세 소리를 내 귀로 들었어. 대한 민국 만세! 그러더구나, 아! 무서웠다. 대한 민국이란 것이 잔인무도한 살인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멀리 도망을 쳤었어. 우리 적국인 일본으로 도망을 쳤단 말야.”¹⁶⁾

④ 하루는 어머니한테 놀러 온 이웃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유당이 다시 나온답니다.”

경희는 그 말을 듣고 이크나! 하고 놀랐다.

“자유당이 다시 나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들 하던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기야 하려구.”

어머니가 어렵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자유당이 지금 돈을 꼭 쥐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못 살게 됐다니 알 수 있어요?”

경희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었다. 만일이라도 자유당이 다시 나와서 또 한 번 세력을 쥐거나 하면, 오빠는 역적으로 몰리고 저희 집안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불쌍한 집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세상이 제대로 안 되면, 역적의 죄를 쓰고, 혹은 누명을 쓰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¹⁷⁾

16) 이원수, 위의 책, 256쪽.

17) 이원수, 위의 책, 314~315쪽.

⑤ “보시다시피 우리 집엔 아이 아버지가 없어요. 그 정미 아버지라는 분이 어떻게나 교활한지, 자기가 들어가야 할 곳마다 우리 집 양반을 걸어 넣지 않았겠어요? 지금 벌써 오래 됐지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방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분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일로? 왜 그렇게 되셨나요?”

경희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모락 중상 때문이죠. 죄 짓고 버젓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짓 안 하고 어떻게 배겨 내겠어요? 정미 아버지가 하는 사람이 그제 무서운 죄인이에요. 치가 떨려서 말도 못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현우를 길러 준 사람이라기에 자선심이 많은 인 줄 알았는데…….”

“자기 죄를 감추려고 남을 눌러서 아주 죽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악한이에요. 우리 집 양반이 그 계략에 걸렸지 뭐예요. 아이, 속상해서…….”¹⁸⁾

①은 흥흥한 집안 분위기로 불안해진 정미의 귀에 들려온 아버지와 친구의 대화 장면이다. 부정축재자로 몰리더라도 반공 사상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 ②는 정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장면이다. 정미 아버지는 4·19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 호응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디 두고 보자는 심보다. ③은 현우와 외삼촌의 대화 장면이다. 외삼촌은 6·25 양민 학살사건의 피해자인 현우 어머니가 죄인처럼 엎드려 지내야 했던 조국의 현실에 울화가 치밀어 역정을 낸다. 또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애국’의 학살현장을 떠올리곤 치를 떠난다. ④는 4·19로 오빠를 잃은 경희가 어른들이 나누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세상이 잘못되면 역적의 죄를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장면이다. ⑤는 현우 외숙모가 경희 어머니에게 자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다. 현우 외삼촌이 감방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죄를 감추려

18) 이원수, 위의 책, 344~345쪽.

고 온갖 계락을 쓰는 정미 아버지의 모함 때문이라면서 분을 참지 못한다.

이런 장면들은 4월 혁명을 낭만화하지 않는 겹눈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밖에도 『민들레의 노래』에는 기법과 시점 면에서 잘 설계된 장점들이 많다.¹⁹⁾ 역사적 숙제를 남긴 어른들의 세계를 원경으로 물리고 ‘민들레’로 상징되는 아이들의 희망찬 다짐을 전경화해서 막을 내린 짜임도 소년소설다운 해결이라 하겠다.

2) 『메아리 소년』—분단의 비극성을 은폐하는 반공·애국주의 비판

『메아리 소년』은 1964년 7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가톨릭소년』에 연재되었고, 1968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이다. 1984년 응진출판사에서 발행된 작가 전집에 포함되었으며, 2002년 창비사에서 단행본으로 재출간되었다. 이 작품이 아동잡지에 연재되고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된 때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 시대였다. 5·16 주도세력은 ‘혁명공약’으로 ‘반공 국시’를 천명했다. 또한 간첩 자수기간을 선포하면서 이 기간 이후의 체포자는 극형에 처한다고 밝혔다.²⁰⁾ 4·19 혁명과 더불어 터져 나온 혁신계의 통일운동은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될 위협에 노출되었다.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무산되었으며, 오히려 일부 유족과 관계자들이 이적행위자로 몰려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²¹⁾ 정부는 ‘반공법’을 공포했고, 교육과정에 반공교육을 의무화했다. 정부를 비판하면 ‘불순분자’ ‘용공세력’ ‘이적행위자’로 몰렸다. 국가의 공식적인 전쟁 기억과 다른 목소리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이원수의 창작실천은 남달랐다. 『메아리 소년』은 5·16 군사정변으로 얼어붙은 시국에 연재된 작품이지만, 4·19 혁명의 열기 속에서 지어진 『민들레의 노

19) 자세한 것은 서사학적 방법으로 『민들레의 노래』를 꼼꼼하게 분석한 최미선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미선, 「이원수 소년소설 서사성 연구」, 『이원수』(장영미 편), 글누림, 2016.

20) 김지형,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동아시아문화연구』 5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224~227쪽, 참조.

21) 이강수, 앞의 논문, 2쪽.

래』와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1960년대 문학’은 5·16이 아니라 4·19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문학사적 의미를 이원수의 창작실천이 말해준다.

『메아리 소년』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버지로 인해 힘겨워하는 민이의 이야기다. 민이는 집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웃에 사는 소영과 친하게 지낸다. 둘의 우정 관계를 그린 작품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으로 민이가 겪게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서사의 뼈대를 이룬다. 주된 초점이 시대현실에 대한 인식과 소년의 성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민이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어머니는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어머니가 주모 격인 춘천 아주머니와 함께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술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 어느 날 아버지가 괴투성이가 된 얼굴로 들어오더니 밤에 자꾸 이상한 말을 되낸다. “날 죽여다오, 내가 죽어야 해. 자, 쏘아라, 쏘아! 너만 억울하게 당해서 되나? 날 죽여, 어서어서!”²²⁾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을에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에 민이와 소영이 가봤더니 이상한 짓으로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민이 아버지였다. 민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점점 잦아지자 소영의 어머니는 소영이 민이네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더니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다. 민이한테 친어머니처럼 잘 해주던 새어머니도 아버지의 증세를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난다. 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져서 마을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손찌검까지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자신은 동생을 쓴 죄인이라면서 울부짖는 아버지를 마을 어른이 ‘애국자’라고 달래니까 그 어른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민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점점 움츠러든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민이를 불러 앉히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대화를 청한다. “이 답에 내가 정신병자가 아닌 걸 알게 될 거야. 나더러 정신병자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자인지도 모른다.”²³⁾ 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6·25 전쟁의 비극성에 관해 들려준다. 전장에서 적군을

22) 이원수, 『메아리 소년』(이원수아동문학전집·14), 24쪽.

23) 이원수, 위의 책, 73쪽.

쏘았는데 알고 보니 북한 의용군으로 나간 동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믿기지 않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민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공민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용공, 공산당, 북괴군, 간첩’ 등의 어휘를 써가면서 애국심을 설명하는 도중에 민이가 불쑥 질문을 던진다. 그 시절 반공교육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뒷부분은 권정생의 『몽실 언니』와도 겹치는 바 있으므로 좀 길더라도 직접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²⁴⁾

“북괴군이 만일 일가 친척일 때는 어떡합니까?”

“일가 친척일 때는? 좋은 질문이다.”

공민선생님은 무슨 수나 난 듯이 교탁에 두 손을 댄 벌려 쥘고 아이들을 내려다 보시며,

“너희들, 적군이 만일 일가 친척일 때에는 북괴군을 동정하거나 그들을 위해 우리 나라를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가? 어디 말해 봐.”

잠시 교실 안이 잠잠해졌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일가 친척이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동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말했다.

“좋아!”

선생님은 만족스런 듯이 교실을 휘둘러보시다가,

“애국심은 일가라 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야. 나 자신까지라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친척이라 해서 적을 끌어들이거나 동정하거나 해서 되겠니? 이민이! 알겠지?”

(…)

“선생님.”

“왜?”

24) “전 아버지가 북괴군이라면 죽이지 않겠어요.”와 같은 대사는 권정생의 『몽실 언니』를 떠올려준다. 『몽실 언니』가 이런 요소들로 말미암아 1980년대에 금서로 취급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괴군이 만일 아버지나 동생일 때에도 그렇습니까?”

“그야 마찬가지지.”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전 아버지가 북괴군이라면 죽이지 않겠어요.”²⁵⁾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민이는 아이들에게 ‘용공주의자’ ‘간첩’ ‘빨갱이’라는 놀림과 함께 못매를 맞는다. 간첩이라는 놀림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외로움을 느끼던 민이는 마치 자신을 증명하려는 듯이 길에서 만난 낯선 아저씨를 간첩이라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다. 아저씨는 민이네 마을에 사는 사람의 집을 찾는 것이었는데 어디에서 오느냐는 민이의 물음에 ‘이북’ ‘인민공화국’이라고 농담조로 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민이의 신고로 아저씨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고초를 겪는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간첩을 신고한 일로 민이는 학교에서 애국소년이라고 칭찬받는다. 길에서 만난 낯선 아저씨가 민이에게 엉뚱한 농담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아저씨를 신고한 일로 나중에 민이가 화를 입게 되면서 그 사정이 밝혀진다.

서술 시점이 이사 간 소영으로 잠시 바뀌고 6·25 전쟁의 후유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목격된다. 소영은 친구 정님과 약속터 가는 길에서 실성한 벌거숭이 여자를 본다. 모두들 구경만 하고 있는데 벌거숭이 여자의 옷을 추어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민이의 새어머니다. 소영은 민이 새어머니로부터 벌거숭이 여자의 이상한 행동이 전쟁 때문에 생긴 병임을 듣는다. “저 여자 남편이 죽을 때, 벌거벗겨 놓고 총을 쏘아 죽였대. 저 여자도 벗겨 놓고 총을 쏘았는데 쓰러졌다가 나중에 살아난 모양이지? 어쩌면 그렇다고 미쳐서도 걸핏하면 벌거벗고 남편을 부르곤 하니 딱하지 뭐냐?”²⁶⁾ 이렇게 6·25 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 이야기와 더불어 민이와 소영이 다시 만나는 계기가 마련된다. 새어머니의 행방을 전하는 소영의 편지를 받은 민이는 새어머니를 만나러 소영이 사는 마을로 가다가 정님의 오빠로부터 봉변을

25) 이원수, 앞의 책, 86~87쪽.

26) 이원수, 위의 책, 122쪽.

당한다. 민이의 신고로 경찰서에 불려갔던 아저씨는 소영의 친구 정님의 외삼촌이다. 이복 출신인 정님의 외삼촌은 술자리에서 ‘동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가 의심받는 일을 막 겪고 나서 민이를 만난 것이고, 이때 억하심정으로 ‘이복에서 왔다’고 농담을 건넸다가 민이의 신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정님의 오빠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다친 민이를 소영이 민이의 새어머니한테 데려간다. 새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민이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 민이를 위로한다.

민이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환각 증세에 빠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고, 마침내 민이는 혈혈단신이 된다. 민이를 괴롭히던 아이들도 사정을 듣고 조문 와서 민이를 위로하건만, 이번에는 춘천 아주머니가 동거하는 남자의 사주를 받고 집을 가로채려 든다. 그런데 마을의 제지공장 박 선생이 민이를 돕고 나서자 춘천 아주머니의 남자도 직접 나선다. 그는 자기 몸의 상처를 드러내고 ‘애국용사’를 알보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 일로 경찰서에 불려간 뒤로 남자는 더 이상 얼씬거리지 않게 되고, 제지공장 박 선생이 민이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고 해서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그러나 민이를 고통에 빠뜨린 시대현실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민이가 담임 선생님에게 자기 아버지는 애국자이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슬픈 애국자’라고 말해주는데, 대화를 엿들은 공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온하다고 몰아세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담임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른들이 만든 역사적 불행이 쉽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다르다. 민이를 못살게 굴던 학교 아이들도 이젠 의형제를 맺자고 나서고, 소영은 누이동생이 되어주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아이들은 산에 올라 서로의 이름과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메아리 소리를 듣는다.

이 장편은 분단현실의 문제를 파헤친 것으로 특히 ‘반공=애국’의 도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작가는 불순분자·용공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지배관념과 맞서는 태도

를 보여 주었다. ‘애국’의 의미를 되묻는 공민 시간 에피소드 같은 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다. 결함도 없진 않다. ‘전장에서 아우를 쏘아죽인 형’이라는 설정은 리얼리티 면에서 과도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누구도 시비를 가리지 않는 ‘애국’의 의미를 묻는 데 있다고 본다면, 분단의 비극성을 단숨에 각인시키는 상징으로서 이런 ‘동화’ 같은 설정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생겨난다. 당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금기와 검열의 시대였다. 6·25 전쟁의 양민학살사건을 불러온 벌거숭이 여자 에피소드, ‘동무’라는 말조차 맘대로 쓰지 못하는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간첩 신고 에피소드, ‘슬픈 애국자’라는 아이러니한 표현을 썼다고 불온교사로 몰려 학교에서 쫓겨나는 선생님 에피소드 등만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요컨대 이 장편은 인물의 심리와 행위에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동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설득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작가는 반공·애국주의가 분단의 비극성을 은폐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소년소설의 방식을 택했고 이는 당대에 보기 힘든 독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3. 강소천의 대표 장편

집과 가족을 떠나 6·25 전쟁 중 단신으로 월남한 강소천은 새로 하위자의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남한 사회에 적응했다. 남한은 그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그는 유복한 집안 덕분에 일제 말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심의 순수성이 돋보이는 동시집을 펴낼 수 있었다. 그의 동시는 해방 직후 그가 살던 북한이 아니라 그가 부재한 남한에서 오히려 유명세를 탔다. 그는 윤석중, 박목월, 김동리 등으로부터 남다른 환영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주계급과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을 피해서 전쟁 기간 중 목숨을 걸고 월남한 그의 이력은 전후의 상황에서 쓰임이 많았다. 반공주의와 한 몸이었던 그는 빠르게 문단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월남한 기독교인

아동문학가들이 서로 손잡고 ‘문협정통파’ 주위에 포진함으로써 아동문단의 새로운 계보와 흐름이 형성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직으로 임명되거나 한국아동문학회 회장직을 맡아 활약한 ‘강소천—김영일—박화목—김요섭’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그것이다.

강소천은 월남한 기독교인 반공주의 아동문학가 인맥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전후시대의 초·중등 교과서에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아동문학가였고, 그에 따른 대중적인 명성이 뒤따랐다. 그의 작품은 ‘동심천사주의’와 ‘교훈주의’ 통념이 널리 유포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그의 작품 목록에는 정전으로 평가되는 수작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강소천은 이원수와 대척적인 자리에서 생을 마쳤다. 둘 사이의 틈이 가장 크게 벌어진 곳은 장편 소년소설의 자리였다. 비단 이념적 지향의 차이만은 아니었다. 강소천의 대표 장편으로 꼽히는 『해바라기 피는 마을』과 『그리운 메아리』의 경우, 대중성은 높았을지언정 작품성도 과연 그러한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 『해바라기 피는 마을』—반공으로 맺어진 ‘흙 스위트 흙’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1955년 7월부터 1956년 8월까지 『새벗』에 연재되었고, 1956년 대동당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런 뒤에는 을유문화사 발행의 『강소천아동문학독본』(한국아동문학독본·6권, 1961), 문천사 발행의 『강소천문학전집·7권』(1978), 문음사 발행의 『강소천문학전집·7권』(1981), 교학사 발행의 『강소천문학전집·6권』(2006) 등으로 이어졌다. 『새벗』의 첫 번째 연재분을 보니 작품 맨 끝에 “위 소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방송국에서 25회에 걸쳐 연극으로 방송한 것을 다시 소설로 고쳐 싣기로 했습니다.”²⁷⁾라는 작가의 말이 붙어 있다. ‘라디오 연속극—아동잡지 연재물—첫 장편 단행본’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을 것이라

27) 『새벗』, 1955.7, 98쪽.

고 여겨지는데,²⁸⁾ 여러 차례 간행된 작가 전집 외에 단행본 형태로는 재출간된 적이 없어 다소 의아스럽다. 이는 지금까지도 단행본으로 독자와 만나고 있는 이원수의 장편과 비교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후시대 독서계를 풍미했던 김내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청운사, 1952)과도 비교된다는 것이다. 통속적이라는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쌍무지개 뜨는 언덕』은 단행본으로 거듭 출간됨으로써 즐기차게 독자와 만나 왔다.²⁹⁾

강소천의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김내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척박한 전후시대 독서계를 뜨겁게 달구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목의 조어법부터, 등장인물이 데칼코마니 그림 모양으로 대위법을 이루는 스토리에 이르기까지, 두 작품은 비슷한 구석이 적지 않다. 이 작품들의 주된 인기는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는 스토리의 통속성에 기인한다. ‘엇갈린 운명’은 세상사와 무관하지 않기에 그 자체로는 하등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도식적이다시피 딱 맞아떨어지는 대위법적 관계라면 사정이 다르다. 독자의 마음을 졸이다가 마지막에 감탄을 자아내고자 억지스럽고 자극적인 수법이 남용되는 ‘막장 드라마’ 종류는 설사 슬픈 이야기일지라도 쾌감의 카타르시스라는 오락성 위주로 설계된다. 권선징악의 교훈성 역시 독자의 대리 만족과 관계된다. 이런 의미에서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통속성, 오락성, 교훈성이 앞서는 작품이다.

기본적인 인물 배치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살펴보자. 첫 장면에서 주인공 정희는 학교행사로 일선장병에게 보낸 위문편지의 답장을 받는다. 답장을 보낸 이는 육군 소위이고, 자신도 정희처럼 이번 전쟁의 피해자라면서 정희를 누이동생처럼 여기겠다고 한다. 6·25 전쟁으로 정희는 아버지와 오빠를 잃

28) 강소천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 ‘영원한 어린이의 벗, 강소천’(http://www.kangsochun.com/kor/about/history.php)의 작가 연보를 보면, “1958년 『해바라기 피는 마을』이 영화화”되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 필자가 구해 본 각종 한국영화 관련 서적을 물론이고,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바라기 피는 마을』의 영화화”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29) 참고, 「1950년대 통속 아동문학 연구: 김내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과 조훈파의 『알개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3, 참조.

었는데, 군인 오빠는 아버지와 누이동생을 잃은 처지다. 둘은 친남매처럼 서신을 나눈다. 정희에게 군인 오빠는 심적으로 죽은 오빠를 대신하는 관계이고, 군인 오빠에게 정희는 죽은 누이동생을 대신하는 관계다.

소년소설답게 서사의 가장 많은 부분은 정희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할애되어 있다. 어린이예술제의 출전을 앞둔 상황에서 연극의 주연 자리를 놓고 정희와 금란이 경쟁하는데,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으스대는 금란의 욕심과 투정, 시기와 속임수 등으로 인해 둘 사이에 얽치락뒤치락하는 갈등이 펼쳐진다. 이들의 갈등은 학급회의와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정희가 연극의 주연을 맡고 금란은 피아노 독주 대표로 결정되면서 일단락된다. 연극의 제목은 ‘남매 일기’이고, “사변에 아버지를 잃은 두 오누이, 어머니를 도와 가며 공부를 해 가는 눈물겨운 이야기”³⁰⁾라고 내용이 소개된다.

정희의 어머니는 국제시장에서 옷감장사를 하는데 화재로 가게를 잃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정희는 큰아버지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온갖 고생을 한다. 어렸을 적 정희는 의사였던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집에 피아노를 두고 솜씨를 자랑하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정희는 조카들의 못된 짓거리를 견디다 못해 부둣가 바위에 올라 몸을 던지려 한다. 다행히 정희를 찾아 나선 친구들이 발견해서 마음을 고쳐먹는다.

결말에 이르러 금란은 경연대회 예선에서 탈락하고 정희가 주연을 맡은 연극은 우승을 차지하는 반전이 이뤄진다. 작가는 여기에서 정희의 가족로망스까지 완성되는 화룡점정을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다시 군인 오빠가 소환되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희생용사’로서다. 연극이 끝난 뒤 군인 오빠 이름으로 배달된 꽃다발을 받고 기대에 부푼 정희가 시상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자 군인 오빠의 어머니가 대신 와서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아들의 뜻이라면서 정희를 자기 딸로 삼고 싶다고 한다. 이를 받아들인 정희가 군인 오빠의 방에 와보니 거기 오빠가 치던 피아노가 놓여 있다.

30) 강소천, 「해바라기 피는 마을」, 『강소천아동문학독본』(한국아동문학독본·6), 을유문화사, 1961, 51쪽.

정희는 금란과 화해하고 피아노 연습을 해서 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이번에는 금란이 2등, 정희가 3등을 수상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서사적 기초는 정희와 군인 오빠에게 붙여다친 알곡기 짝이 없는 ‘엇갈린 운명’이다. 둘은 공히 전쟁으로 가장을 잃었고, 정희는 오빠, 군인 오빠는 누이동생까지 잃은 처지인데, 나중엔 정희가 어머니를 잃고 군인 오빠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게 되어 서로 가족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선명한 도식을 이루는 이런 대위법적 보완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작위적이다.

더 많은 독자를 흡입하기 위한 자극제로서의 통속성으로 치자면, 정희와 금란 사이의 갈등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데에서 남발된 상투적인 선악 대결도 한 몫을 한다. 작가는 교훈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데, 월남 이후 강소천 작품의 교훈성은 생활상의 도덕관념을 넘어서는 어떤 시대적 ‘대의’를 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대의란 반공주의에 입각한 투철한 국가관·애국심을 가리킨다. 학교를 무대로 사사로운 교우관계를 다룬 듯해도, 작품의 주요 인물에게 주어지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공산군의 침략이라는 대전제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불행의 크기를 두드러지게 하려고 정희의 출신 배경도 군이 부유층·상류층으로 설정했다.

본시 정희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사변 전엔 정희네도 금란이네 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변으로 해서, 병원은 재가 되고 아버지와 오빠마저 빼앗겨 버리고 지금은 정희와 어머니 단 두 식구입니다.³¹⁾

정희는 금란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사변 전 생각이 났습니다.

—6·25 사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 피아노도 그냥 있었을 텐데…… 사변은 우리 집을 태우고, 내 피아노를 없이하고, 우리 아버지를 끌어가고……³²⁾

31) 강소천, 위의 책, 20쪽.

32) 강소천, 위의 책, 27쪽.

이런 상류층 배경은 강소천 동화의 단골 소재인 위문품, 크리스마스 선물, 학예회, 음악 연주, 피아노 등과 더불어 미국식 선진문화에 대한 선망 의식을 부추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작가가 꿈꾸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부모가 거실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전형적인 ‘홈 스위트 홈’이 아닐런가. 『해바라기 피는 마을』은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 시각이 포개어진 작품으로서 북한공산군의 침략으로 무너진 두 가족의 행복한 삶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희망차게 일어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소중하다면, 그렇게 읽고 위안을 받은 독자대중의 호응에도 눈길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강소천은 분단현실의 극복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기득권세력의 자기방어기제이자 민의를 억누르는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한 반공주의와 한 몸이었다. 서사의 개인성과 내용의 현실성은 거의 뒷전이였다. 이 장편이 한때는 인기를 모았을지라도 단행본으로 재출간되지 않은 이유를 이런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그리운 메아리』—북진·멸공통일을 전파하는 월경의 상상력

『그리운 메아리』는 1963년 학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강소천의 마지막 장편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은 『서울신문』(1959~1960)에 연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다. 학원사에서 발행된 단행본에는 작품 말미에 “1960”이라고 연도만 밝혀져 있다. 이번에 새로 조사해 보았더니 적어도 『서울신문』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³³⁾ 발표지면과 연재기간에

33) 강소천 작품의 서지사항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서 정리한 박금숙의 박사학위 논문과 여기에서도 밝히지 못한 서지사항을 마저 꼼꼼하게 검토해서 수정 보완한 이은주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그리운 메아리』의 발표 지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 있다.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이은주, 「강소천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박금숙은 작가가 손수 만든 연도별 스크랩북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발표지면과 날짜는 밝혀지지 않는다면 “『서울신문』(1959~?)”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은주는 『서울신문』, 『연합신문』, 『대한일보』, 『한국일보』 등에 연재된 적잖은 작품들의 서지사항을 바로잡았음에도 『그리운 메아리』에 대해서는 단행본의 서지사항만 밝히고 발표지 정보는 공란으로 두었다. 『서울신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되 이해하기 어려웠다. 두 연구자와 교신한 끝에 서로 협력해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서울신문』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학원사의 단행본 이후로는 문천사 발행의 『강소천문학전집·5권』(1978), 문음사 발행의 『강소천문학전집·11권』(1981), 교학사 발행의 『강소천문학전집·9권』(2006)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역시 단행본으로는 재출간된 적이 없다.

이 장편은 얼마간 SF 성격을 지닌 판타지다. 발상으로 치자면 장편동화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 단행본을 펴내면서 붙인 작가의 ‘후기’를 보면 “과학 소설” “공상 소설” “동화”라는 말이 모두 나온다.

요즘 우리 나라에도 과학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그리운 메아리”는 그런 과학 소설은 아니다. 과학과는 거리가 먼 공상 소설이다. 그러나 이 공상이 황당무계한 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불러 일으키는 공상 소설이라 생각하면, 과학 소설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

소설이라기보다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운 메아리”는 중학생들에게 읽히고 싶은 작품이다.³⁴⁾

장르 구분이나 명칭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학생들에게 읽히고 싶은 작품”이라고 밝힌 만큼, 중학생 대상의 ‘소년소설’로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고, 얼마큼 설득력 있게 지어졌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학원사 발행의 단행본 표지에는 제목 앞에 ‘순정소설’이라는 갈래명이 붙어 있다. 출판사의 판매 전략에서 비롯된 명칭일 뿐,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작가는 ‘후기’를 통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랄까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

『그리운 메아리』는 여기에 발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19 혁명 당시 성난 시위대의 신문사 방화로 1960년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3개월치 자료가 누락돼 있었으나, 『그리운 메아리』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연재돼야 하는 긴 장편이므로, 3개월치 자료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에 연재된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34) 강소천, 『후기』, 『그리운 메아리』, 학원사, 1963. 말미에 “1963.5 지은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단행본의 후기를 쓴 때는 거의 임종에 즈음해서였다. 연재가 끝난 어느 시점에 써냈다가 발행이 늦어지자 거기에 맞춰 날짜만 고친 것일 수도 있다. 단행본 발행일은 1963년 5월 10일, 작가의 임종일은 같은 해 5월 6일이다.

혀 놓았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박 박사'라는 분을 통하여 6·25 때 단신으로 월남한 북한 동포들의 심정을 그려 보려 한 것이다.

6·25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 어른들은 차츰 그 때의 참혹했고 울분했던 일을 잊어 가고, 소년들은 통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 같다.

잃어 버린 고향—두고 온 가족과 친척—북한 피난민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대—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환상으로 나타나, 나로 하여금 “그리운 메아리”를 쓰게 한 것이다.³⁵⁾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6·25의 비극을 잘 알지 못하는 전후세대에게 월남인으로서 경험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모양의 작품을 썼다는 말이겠다. 6·25가 일어난 지 10년쯤 되는 시점에 북한의 실상을 그려 보이려니까 환상의 수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새가 되어 철조망을 넘어가는 월경의 상상력이다. 이런 월경의 상상력은 이미 동화에서 여러 차례 구사된 바 있다. 이번에는 소년층을 겨냥한 장편인 만큼 당시 인기를 끌던 과학소설의 요소를 접목해서 장르 혼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운 메아리』는 작품 길이가 상당하고 이야기도 여러 갈피로 펼쳐져 있어 언뜻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스토리의 구조 자체는 간단하다. 크게 보면 꿈속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로 나뉜다. 형 영길이가 만화책 때문에 다투고 나간 동생 웅길이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뒤에 웅길이가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둘의 해후가 이뤄지는 액자형이다.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인데, 서술자가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사건이 집안에서 끝 영길이의 꿈임을 밝히기 때문에,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일종의 지연 효과로 서사적 긴장이 발생한다. 본격적인 사건은 웅길이가 이웃에 사는 과학자 박 박사의 집을 찾아가는 데

35) 강소천, 위의 글.

에서 비롯된다. 월남해서 혼자 지내는 박 박사는 남북통일이 꿈이다. 박 박사는 새가 되어서라도 북한의 고향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이를 실현시킬 연구를 진행해 왔고, 마침내 제비로 변신하는 약물 개발에 성공했다. 박 박사가 제비로 변신해서 북한에 다녀오는 이야기가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장편답게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데다 수시로 장면이 전환되고 사건 진행을 역전·병치하는 등의 트릭이 구사돼 있어 읽는 내내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다.

일단 제비로 변신하는 인물이 여럿이다. 이들은 제각각 따로 움직이는데 겉모습은 구별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웅길이가 박 박사의 실험실에 들어갔다가 제비로 변신한다. 웅길이 제비는 당황해서 학교 운동장으로 날아갔다가 아이들에게 붙잡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팔려 다닌다.³⁶⁾ 영길이와 웅길이 형제 말고도 노래하고 춤추는 신기한 제비를 텔레비전 방송에 데리고 나가는 기수와 철수 형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바람에 서사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웅길이 다음으로는 약물을 개발한 박 박사가 제비로 변신해 북한 땅으로 날아간다. 도중에 북한 아이들에게 '반동분자 제비, 지주 제비, 간첩 제비'로 몰리기도 하고, 기독교 신자라서 박해받는 모세 할머니를 만나기도 하며, 마을의 악독한 인민위원장 김 씨가 기독교 신앙 덕분에 회개했다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등의 북한체제 목격담이 이어진다. 고향마을에 당도해서 딸 순이를 만나고 집안이 풍비박산된 사실도 알게 되지만 사람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서울에서는 박 박사 실종 사건으로 경찰과 과학자 조사관들이 박 박사의 집에 와서 온갖 추론을 해본 끝에 개에게 실험실 약물을 먹이니 매미로 변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 조사관 중 박 박사

36) 작가가 웅길이 제비의 여정을 통해 남한 사회의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했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 (김수영, 「강소천 연구: 트라우마와 애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은주, 앞의 논문) 이러한 연구는 작가가 남북한 체제를 모두 비판했다는 관점에서 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한 불균형성을 언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남한의 여정은 흔하다흔한 도덕적 선악으로 비치는 반면, 북한의 여정은 노골적인 이념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웅길이 제비의 여정은 박 박사 제비의 여정처럼 정치적·사회적 비판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웅길이가 변신한 제비의 신기한 능력과 이를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술책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아서 자세한 분석을 생략했다.

처럼 북한에 가족을 두고 월남한 유 박사가 또 약물을 먹고 제비로 변신해서 박 박사를 찾아 나선다. 유 박사 제비도 북한으로 날아가는데 도중에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진 것을 월남한 가족을 둔 나무꾼 소년이 구해준다.

한편, 북한에서 돌아온 박 박사는 여러 친구들과 조사관들을 집에 초대해서 그간의 경위와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힘차게 태극기를 휘날리며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것 (….) 오직 그 한 길 밖에는 정말 없”³⁷⁾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런 뒤에 웅길이와 유 박사를 찾아 다시 제비가 되어 날아간다. 2차로 변신한 박 박사 제비는 모세 할머니의 임종과 장례식을 지켜보고 돌아오다가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다. 간신히 휴전선의 미군한테 날아들어 치료를 받고 살았으나, 집 근처까지 와서 아이가 쏜 고무줄 총에 또 맞는 바람에 빈터에 떨어져 죽어간다. 우여곡절 끝에 제모습으로 돌아온 웅길이가 박 박사 제비를 발견하고 살려내려 애쓰지만 이미 늦었다. 박 박사 제비의 죽음으로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 영길이가 꿈에서 깨어난다. 뒤이어 동생 웅길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온다. ‘실험실의 박 박사’는 영길이와 웅길이 형제가 본 만화책에 나오는 인물이었다. 형제는 ‘박 박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마을의 박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할아버지가 집에 없자, 가족을 두고 월남해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산으로 올라가 할아버지를 만난다. 할아버지는 못다 이룬 통일의 꿈을 말해주고, 영길이는 자기가 꾸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 형제가 다음에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형제가 메아리를 부르면서 작풍은 끝이 난다.

이상의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말하려는 바는 비교적 명료한 데 비해서 짜임은 사뭇 복잡해 보인다. 박 박사 제비의 북한 목격담이 핵심이지만, 웅길이 제비, 박 박사 제비, 유 박사 제비가 제각각 겪는 일들이 번갈아 나오고, 이상한 제비를 잡아 횡재하려는 적대자로 인해 위기를 겪는 등 여러 갈피의 화소를 병진시킴으로써 궁금증을 자아내는 서술 방식이다. 제비로 변신

37) 강소천, 『그리운 메아리』, 학원사, 1963, 187쪽.

하고서도 시점이 유지된다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텐데, 날아든 제비를 바라보는 인물의 시점으로 서술한 에피소드가 적지 않아서 전후 사정이 밝혀지기까지는 제비의 정체를 맞추는 시험지를 받아든 느낌조차 든다. 트릭을 동반한 복잡한 서술 전략을 장편 소년소설다운 면으로 이해한다면 다중 시점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 지연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작위적일뿐더러 수시로 김을 빼놓곤 한다. 긴 장편임에도 모든 게 끊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대목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시도한 장르 혼합은 성공적인가? 이 작품은 사람을 제비로 변신케 하는 실험실 장면만 끼워 넣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발상은 유년 취향의 ‘소원 성취 판타지다. 실험실에서 발명한 약물을 먹고 새가 되어 날아간다? 북한의 실상을 전후세대에게 들려주려고 특유의 동화적 상상력을 구사한 과거의 경향에서 진전된 것은 없다. 더욱이 작가가 그려낸 북한의 실상은 선전문학에서 익히 보는 상투성으로 점철돼 있다. 몇 군데 뽑아서 인용해 보겠다.

“아니냐, 저거 봐! 정말 제비야. 봄에 왔다 가을에 가지 못하고 여태껏 있는 모양이지?”

“저거 반동분자 제빈게다. 혼자 겨울에 날아 다니는 걸 보니.”

“그래, 지주 아들인게다. 강남에서 쫓겨나서 다시 강남엘 못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저 자식 간첩일는지도 모른다.”

“그래 무슨 탐정을 나왔나보다. 고무줄 총을 가져다 쏘아 버릴까?”³⁸⁾

“그래! 겨울에 무슨 제비가 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 놀부 흥부 이야기 아세요?”

“알지. 그렇지만 그건 옛날 얘기구, 지금엔, 하느님이 제비의 목숨도 다 맡아 가지구 계시단다. 정말 너희들이 본 게 틀림없는 제비라면 우리 나라가 통일될 징조인지도 모른다.”

38) 강소천, 위의 책, 81쪽.

“할머니! 징조라는 게 뭐유?”

“통일될 표적이란 말이지. 제비는 남에서 오는 거란다. 그러니 이남 소식을 가지고 왔을꺼야. 우리 나라가 통일만 된다면—”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곳 사람들을 다 깨우쳐 주시옵소서!”³⁹⁾

“제비? 그게 제비야? 겨울에 제비가 어디 있던 말이야? 저건 제비가 아니라 ‘강’가 놈의 혼이야, 귀신이야!”

“여보, 정신을 차려요. 남이 들으면 어쩔려구? 당원이 제비를 무서워하구 귀신을 무서워하다니?”

“듣기 싫어! 누가 날 당원으로 만들었어? 내가 되고 싶어 된 당원이야? 모두들 날 그렇게 만들었지. 그 놈의 당원이 날 일가도 친척도 다 잡아 먹도록 만들거야! 내 주위에 누가 있나 말이야? 지금—”⁴⁰⁾

제비는 순이의 손바닥에 날아와 앉아 슬프게 슬프게 울었다.

“제비야! 너도 우리 같은 신세로 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곳 빨갱이들 등살에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가셨단다. 여기서 잡히면 반동분자라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말이지. 우리도 그 때 함께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 때 우리는 어렸고,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 하며, 못 떠났지. 제비야! 너희들은 날개가 있어서 얼마나 좋겠니! 참 그런데 제비야! 넌 짝을 잃었니? 그렇지 않으면 네 새끼를 잃었니?”

제비는 그저 슬프게 울기만 했다.⁴¹⁾

“이 간나가, 왜 이렇게 건방질까? 꼭 네 애비 놈을 닮아서 그렇게 소가지가 나쁘

39) 강소천, 위의 책, 84~85쪽.

40) 강소천, 위의 책, 90쪽.

41) 강소천, 위의 책, 133쪽.

구나! 너도 훌륭한 반동분자란 말이야!”

“무엇 때문에 내가 반동분자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현물세를 내게 해도, 우리는 굶어 가면서도 죽지 못해 그걸 내 왔다! 현물세 잘 내는 우리가 반동분자라면 너희들은 뭐냐?”

“이 간나가,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아가리 닥치지 못해?”

“자, 그런 간나하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서 찾아 보자.”

다른 내무서원이 이렇게 말하자,

“그래, 내가 여기 서서 이 두 사람을 달아나지 못하게 지킬 테니, 동무는 집을 살살이 뒤져 보시오.”

“그래! 내가 꼭 찾아 낼게…… 만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총을 마구 쏠테다. 목숨이 아까우면 나올 테지.”⁴²⁾

제비의 여정으로 그려낸 북한의 모습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제비는 구경꾼 이상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목격한 장면과 작품의 서사가 긴밀히 엮이는 관계도 아니다. ‘월경의 상상력—북한의 비참한 실정—멸공통일’의 도식으로 보건대, 이 장편은 필자가 앞선 논문에서 졸작으로 분류한 「방패연」과 「꿈을 파는 집」의 확장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종류는 관계의 도식만 바꾸면 그대로 북한의 선전문학도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강소천의 1950~60년대 장편 연재물이 단행본으로 출간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부분 1년 미만이었다. 그런데 『그리운 메아리』는 연재가 끝나고 3년 쯤 지나서야 단행본으로 나왔다. 이 작품이 연재된 때는 자유당 정권 말기였다. 연재가 끝난 뒤에 4·19 혁명으로 혁신계의 통일운동이 터져 나온 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때는 북진·멸공통일을 주창하는 작품을 파내기에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상황이 다시 반전되었다. 작가는 새로 ‘후기를 붙이면서 멸공통일만이 답이라고 ‘전후세대’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듯하다. 이 작품은 〈김삿갓 북한방랑기〉⁴³⁾의 반공교육과

42) 강소천, 위의 책, 137쪽.

43) 1964년 5월에 시작하여 30년 이상 방송된 이상만 연출의 KBS 라디오 연속극이다. 1972년 7월 4일

비슷한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6·25 전쟁에 대한 포스트메모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4. 결론

본고에서 살핀 이원수와 강소천의 장편 소년소설은 한국전쟁의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모두 일간지나 잡지에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들로서 당대에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작가의 창작경향 및 작품세계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원수는 전쟁 중에 겪은 개인의 아픔을 딛고 분단현실을 떠받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비극에 대해 강요된 침묵을 깨는 하위자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권력의 공식적인 전쟁 기억에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강소천은 북한체제에서 핍박 받고 월남한 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라고는 하나, 거기에 국가가 대형 확성기를 달아준 이유를 돌아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의 작품은 무소불위의 반공주의 통치이념을 앞장서서 대변한 꼴이었다. 전쟁 기억과 관련해서 이원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았다면, 강소천은 격한 노여움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전쟁 직후의 동화 창작에서는 두 작가의 공통점이 적지 않았다. 이원수의 「꼬마 옥이」 연작, 강소천의 「꽃신」, 「꿈을 찍는 사진관」 등은 하나같이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면서 속죄와 애도의 표현으로 국민적 트라우마를 위무하는 종류의 작품이었다. 이것들은 어른이 주인공이거나 ‘소원성취 판타지’의 모습을 띠는 것이라 작가 자신의 트라우마 해결이 매우 절실했던 시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강제한 문단 재편과 더불어 두 작가의 행보는 갈수록 엇갈렸다. 특히 4·19 혁명 이후의 창작경향은 문학사적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한’을 빼고 <김삿갓방랑기>라는 제목으로 무대를 남한에만 국한시키고, 새마을운동의 발전상과 국군장병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330>), 참조.

분화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강소천이 작고한 후 ‘소천아동문학상’ 제정(1965)과 함께 한국문인협회 쪽의 계보화 추세는 더 한층 뚜렷해졌고, 마침내 이원수는 한국문인협회로부터 독립적인 한국아동문학가협회의 창립(1971)을 이뤄냈다.⁴⁴⁾ 분단시대의 아동문학은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대립해 왔다. 여기에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뿐 아니라 아동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둘러싼 쟁점도 개입돼 있다.

‘강소천 경향’과 ‘이원수 경향’을 대비하고자 작품의 성패를 이념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경계돼야 마땅하다. 본고의 주된 대상인 장편 소년소설의 경우는 시대현실을 바라보는 두 작가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려진 면이 없지 않으나, 장편 서사의 미학적 자질과 관련된 작품성의 문제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른들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이원수와 강소천의 동화·소년소설 중 누구의 어느 작품을 먼저 떠올릴까? 모르긴 해도 강소천의 작품을 먼저 떠올리는 독자가 훨씬 많을 듯하다. 강소천 동화가 기억되는 이유를 단지 주류적 경향이었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소천 동화는 일부 빼어난 단편을 제외한다면, 현실에서 고통 받거나 결핍을 느끼는 독자에게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고 싶은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통속적·대중적 요소가 강하다. 돌인지 보석인지 구분하지 않고 ‘환상’ ‘꿈’ ‘그리움’ 등의 어휘를 동원해서 ‘강소천 경향’을 추어올리는 것은 의도치 않게 보석을 가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44) 자세한 것은 즐고, 「이원수와 70년대 아동문학의 전환」,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이충일, 『해방 후 아동문학의 지형과 담론』, 청동거울, 2016, 참조.

■ 참고문헌

1. 자료

- 강소천, 『그리운 메아리』, 학원사, 1963.
 『강소천아동문학독본』(한국아동문학독본 · 6), 을유문화사, 1961.
 이원수, 『민들레의 노래』(이원수아동문학전집 · 13), 응진출판사, 초판 1984, 16판 1쇄, 1992.
 _____, 『메아리 소년』(이원수아동문학전집 · 14), 응진출판사, 초판 1984, 16판 1쇄, 1992.
 『이원수아동문학독본』(한국아동문학독본 · 5), 을유문화사, 1961.

2. 단행본

- 원종찬,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_____,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이철지 편,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권정생의 글모음』, 종로서적, 1986.
 이충일, 『해방 후 아동문학의 지형과 담론』, 청동거울, 2016.
 장영미 편, 『이원수』, 글누림, 2016.

3. 논문

- 권나무, 「어린이와 사회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이원수와 강소천의 소년소설」,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김수영, 「강소천 연구: 트라우마와 애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김지형, 「5·16 군정기 박정희 통치이념의 논거」, 『동아시아문화연구』 5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박금숙, 「강소천 동화의 서지 및 개작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박성애, 「1950년대 아동산문문학에 드러나는 이념과 윤리의식: 이원수의 『아이들의 호수』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1.
 박중순, 「이원수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오판진, 「이원수의 『메아리 소년』에 나타난 통일지향성」, 『문학교육학』 10,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원종찬, 「한국전쟁과 아동문학 · 1: 이원수의 전쟁 트라우마와 『꼬마 옥이』」, 『한국학연구』 6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_____, 「1950년대 통속 아동문학 연구: 김내성의 『쌍무지개 뜨는 언덕』과 조흔파의 『알개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2,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3.
 _____, 「한국전쟁과 아동문학 · 2: 강소천의 『꽃신』과 『꿈을 짚는 사진관』」, 『한국학연구』 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이강수, 「1960년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조사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이균상, 「이원수 소년소설의 현실 수용양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18-1, 청람어문학회, 1997.
 이은주, 「강소천 동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이충일, 「1950년대 이원수의 동화 · 아동소설 연구」, 『한국문화기술』 5,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8.

장수경, 「이원수 소년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서사적 지향: 『아이들의 호수』, 『민들레의 노래』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장영미, 「1960년대 아동문학의 분화와 위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최미선, 「이원수 소년소설 서사성 연구」, 『이원수』(장영미 편), 글누림, 2016.

영원한 어린이의 벗, 강소천(<http://www.kangsochun.com/kor/about/history.ph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330>)

The Korean War and Children's Literature

- A Comparative Study on Lee Won-soo & Kang So-cheon's
Juvenile Novels -

Won, Jong Chan*

Lee Won-soo and Kang So-cheon were one of the victims of the Korean War who lost their families and wrote more pieces in remembrance of the War than anyone else. Lee's <Little Ogi> series and Kang's <Flower Shoes> and <The Photo Studio that Captures Dreams>, which were released right after the Korean War, were the major pieces of children's literature that consoled the national trauma and unveiled the tragedy of war. However, the target readers of these pieces are rather high as their fantastic imagination is classified into the fantasies of 'heart-broken adults.' Both writers were desperately seeking to relieve their traumas, so they addressed their own issues through the 'fantasy of granting wishes.' They sought redemption and mourning for the loss of family through a series of children's tales and devoted more to create full-length novels (mostly Juvenile novels) at the new starting point of reality. Those full-length novels include Lee's <Dandelion's Song> and <Echo Boy> and Kang's <The Village Where Sunflowers Bloom> and <Longing for an Echo>. Their full-length novels had conflicting effects due to the discrepancies in their memories of and perspectives toward the Korean War. Lee's novels criticized state violence as a resistance against the governing ideology, while Kang's novels expressed antagonism against 'communists' to reinforce the governing ideology. The two writers' pursuits spread farther apart over time. For that reason, Lee and Kang are named the critical writers who divided the children's

* Inha University Professor

literature of their time into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The influence of Korean War on children's literature has continued throughout the age of division and so has the confrontations in the children's literature groups.

Key words: Children's Literature, Lee Won-soo, Kang So-cheon, Korean War, War Trauma, Anti-communism